

제2강 “숫자로 들여다 본 고전”

목 차

一. 시대의 삶: 다스리는 자와 모시는 자의 역할

1. 어떤 사람이 하나로 통합하는 가(定於一): “불기살인자(不嗜殺人者)”
2.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환과고독, 필선사사자(鰥寡孤獨, 必先斯四者)”
3. 어떤 자세가 필요한 가: “일양일계, 월양일계(日攘一鷄, 月攘一鷄)”
4.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신하가 되어야 하나: “육정, 육사(六正, 六邪)”
5.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다섯 손가락의 간언(五指)”
6. 권력의 유혹과 정도(正道): “왕척이직심(枉尺而直尋)”
7. 그런데 왜 못하는 가: “만취천언, 불탈불염(萬取千焉, 不奪不饜)”

二. 나의 삶: 어떻게 살며, 무슨 낙으로 사나

1. ‘同行’은 곧 ‘同幸’: “일언이관지(一言以貫之)--역지사지(易地思之)의 “충서(忠恕)”
2. ‘三’ 자로 나를 돌아보기: “益者三友, 損者三友(익자삼우, 손자삼우)·三愆(삼건)·三戒(삼계)”
3. 형제의 난: 칠보시(七步詩)
4. 무슨 낙으로 사는 가: “군자의 세 가지 낙(君子三樂)”
5. 배우며 늙어가기: “춧불 같은 배움으로(七十欲學)”

<숫자의 의미>

- 시대적 의미: 4·19세대, 5·18정신, 386세대
 - 연륜의 의미: 10대, 20대 / 30살, 40살
 - 철학적 의미: 오행(五行), 오륜(五倫)
 - 생활 속 의미: 주민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번호
 - 행운/기피의 의미: 7, 4, 6, 8, 로또번호
-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숫자를 가지고 있다.”
 - 숫자는 수학적 부호이면서도 철학적이고 권위적이며 일상적이고 정치적이다.
 - 경전, 역사서, 시작품 등 중국 고전 속에 숫자로 쓰인 용례를 골라 원전과 함께 읽으며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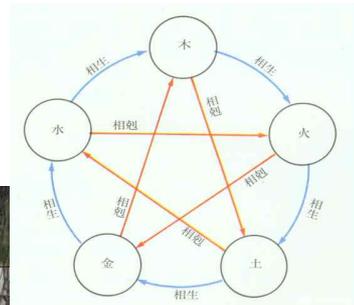


제 769 회

발행일 : 2017/08/25 (금) 14:52:29
 추첨일 : 2017/08/26 (토) TR : 1062282569
 지급기한 : 2018/08/27

55040 24825 52180 05379 82471 62008 21673
 MFS9TTTFB6FFK310 145101040/0000002543

A 수	동	05	06	13	25	27	41
B 수	동	08	17	33	42	43	45
C 수	동	01	03	17	18	21	26
D 수	동	04	05	11	16	41	45
E 수	동	05	21	30	40	43	44



一. 시대의 삶: 다스리는 자와 모시는 자의 역할

□ 정치에서 중요한 세 가지: 백성의 신뢰가 우선->“足食·足兵·民信” (8-9쪽)

“자고로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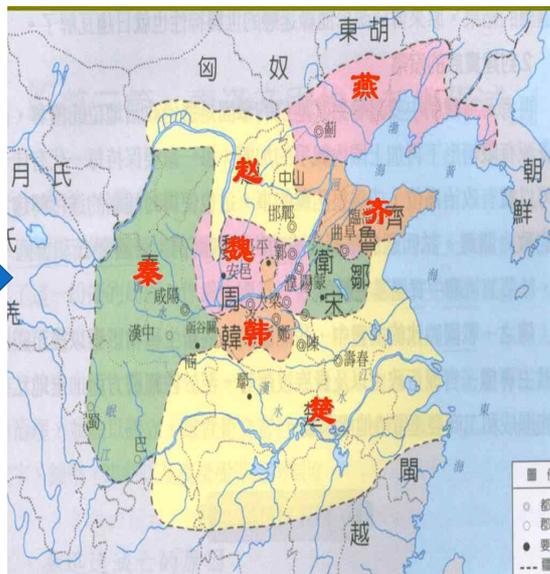
- 어떤 사람이 하나로 통합하는 가(定於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불기살인자(不嗜殺人者)”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해 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춘추시대(기원전770~기원전404)
춘추오패: 제·진·쑹·초·오·월/제·진·쑹·초·송·진·秦



전국시대(기원전403~기원전221)
전국칠웅: 진·초·연·제·조·위·한



2.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사회적 약자 보호 (9-10쪽)

“환과고독, 필선사사자(鰥寡孤獨, 必先斯四者)”

“늙어 아내 없는 이를 홀아비[鰥], 늙어 남편이 없는 이를 과부[寡], 늙어 자식이 없는 이를 외로운 사람[獨], 어리고 아버지가 없는 이를 고아[孤]라고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천하에 궁벽한 백성들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3. 어떤 자세가 필요한 가: 변화를 늦추지 말라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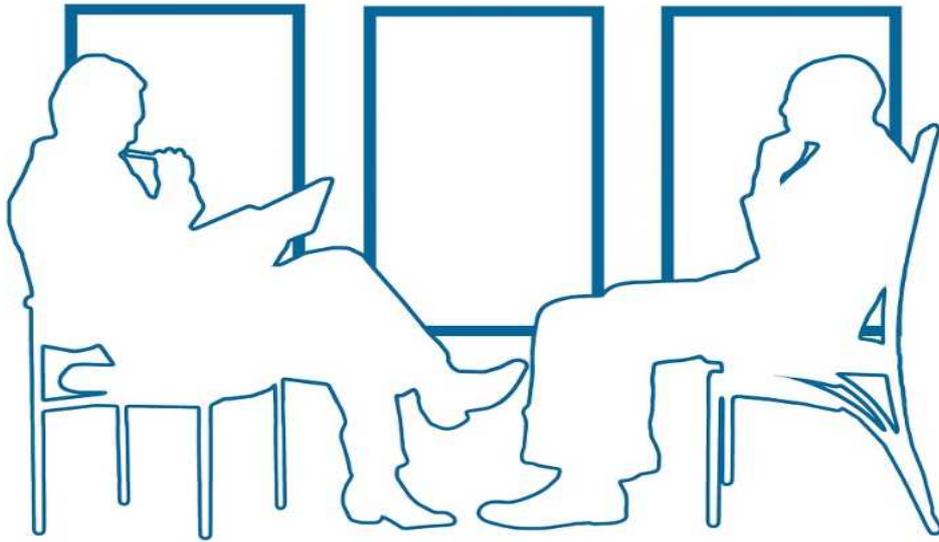
“일양일계, 월양일계(日攘一鷄, 月攘一鷄)”

“이제부터는 그 수를 줄여 한 달에 한 마리만 닭을 훔치다가 내년엔 가서 완전히 그만두겠다.”

“그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면 **속히 그만두어야지**, 어찌 내년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one shot society' / 블라인드 채용



4.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신하가 되어야 하나 (11-12쪽)

“육정, 육사(六正, 六邪)”

-육정(六正): 성신(聖臣), 양신(良臣), 충신(忠臣), 지신(智臣), 정신(貞臣), 직신(直臣)

-육사(六邪): 구신(具臣), 유신(諛臣), 간신(姦臣), 참신(讒臣), 적신(賊臣), 망국지신(亡國之臣)

4-1 사람을 알아보는 다섯 가지 방법: “식인오법(識人五法)” (12쪽)

“오시(五視): 다섯 가지를 보아라”

“평소에 그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가난할 때에 그가 어떤 것을 취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처지가 궁할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현달했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 살펴보고, 부유할 때에 그가 얼마나 남에게 베푸는지 살펴보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실로 사람을 감별하는 대원칙입니다.”

악발토포(握髮吐哺)



洛陽網
lyd.com.cn

4-2 공자의 사람을 쓰고, 알아보는 방법 (13쪽)

“바른 사람을 바르지 못한 사람의 위에 두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며,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른 사람 위에 두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알고 싶을 경우) 먼저 그 사람이 행한 행동, 행위를 잘 보고, 이어서 그가 그렇게 한 까닭, 이유, 동기를 잘 살피며, 그런 후에도 그 사람이 진정 편안해하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기겠는가?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기겠는가?”

* 주공: “머리를 감다가도 중단하고 밥을 먹다가도 뱉어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악발토포握髮吐哺)”

5.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다섯 손가락의 간언(五指)” (13-14쪽)

“첫 번째 손가락은 놀이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어 별거승이가 되었건만, 성결은 높이 짓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임금의 기둥과 대들보는 비단으로 입혀 화려하게 꾸몄건만, 선비나 백성들은 입을 옷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손가락은 광대들에게는 남아도는 술이 지천인데, 죽어가는 선비에게는 갈증을 해소할 물 한 방울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 손가락은 백성은 굶주린 얼굴인데 임금의 말에게는 인간이 먹을 양식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은 곁에 있는 신하는 감히 간언을 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신하는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6. 권력의 유혹과 정도(正道):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펴다 (14-15쪽)
 “왕척이직심(枉尺而直尋)”

“바르게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점을 취하신 것이다.”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펴다는 것은 이익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법도대로 하였더니 하루 종일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다가, 그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짐승과 마주치도록 해주었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자신을 굽힌 사람이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법이다.”

6-1 “불소지신(不召之臣)”과 “유사(有司)” (16쪽)

-불소지신(不召之臣): 임금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

-유사(有司): 전문적인 담당자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성해서 배운 것을 행하고자 해서이니, 왕께서 우선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우선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옥 장인에게 옥을 다듬고 쫄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7. 그런데 왜 못하는 가: 탐욕의 끝 (15-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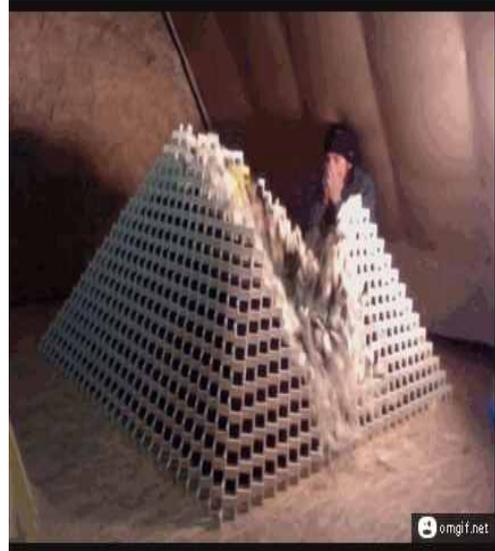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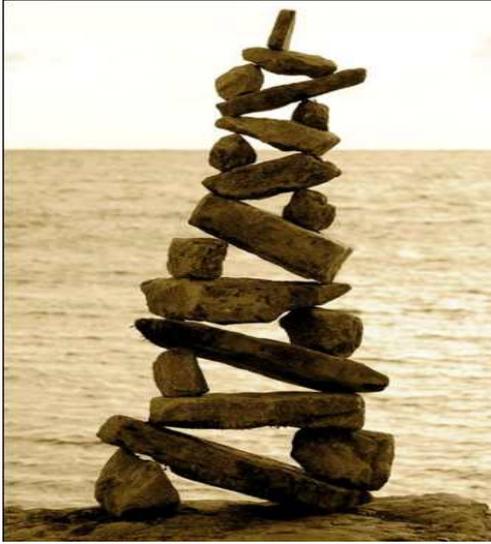
“만취천언, 불탈불염(萬取千焉, 不奪不厭)”

“이런 식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만승에서 천승을 취하고 천승에서 백승을 취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게 아니지만, 진실로 의를 하찮게 여기고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모조리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二. 나의 삶: 어떻게 살며, 무슨 낙으로 사나

□ 끝까지 가보기: “흠 한 삼태기”의 결과->“미성일궤(未成一簣)” (17쪽)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쪽)

“(학문을) 비유하자면 산을 만들 때 마지막 한 삼태기를 붓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며, 비유컨대 산을 만들기 위해 평탄한 땅에 한 삼태기를 붓고 나아가는 것도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훈련의 연속: 자강불식(自強不息), 중도이폐(中道而廢)

1. '同行'은 곧 '同幸': 역지사지(易地思之)--충서(忠恕) (18쪽)

인(仁)=서(恕)

-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推己及人)"
-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 '극기복례(克己復禮)':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사회적 공동이익]로 돌아간다."

*나로부터 시작한 타인과의 '同行'이 진정한 공동체의 '同幸'을 가져옴=>"추기급인"의 정신

*'도덕성 회복'을 통한 '사회질서의 확립'=>"극기복례"의 정신

* 충=진기(盡己):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는 것.

1-1 이(利)와 의(義) (19-20쪽)

*공자와 맹자: 의와 이를 대립적으로 봄

- '의'가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도덕적 길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사욕으로서 물질적 이익을 쫓는 것.

-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먼저하다(後義而先利)'를 반대하고 '의를 먼저 하고 이익을 뒤로 하다(先義而後利)'

*순자: 의와 이는 모두 사람들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의와 이는 사람들이 **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요순일지라도 이익을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익[사욕]을 바라는 마음이 의로움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뒤로하면 영화롭고, 이익을 먼저 하고 의로움을 뒤로 하면 치욕을 당한다.**”

- 한나라, 동중서(董仲舒): “어진 사람은 의를 바로 잡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다(仁人者, 正其義, 不謀其利)”

- 송나라 주희: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앤다(存天理, 滅人慾)

<의와 이의 대립> (21쪽)

-의로움을 중시하고 이익을 가벼이 여긴다: '중의경리(重義輕利)'적 가치관

- '의'와 '이' 대립='군자'를 '소인' 분리

=>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 '의'와 '이' 대립: 난세와 치세'의 표준: “천하가 다스려지려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의를 숭상하고, 천하가 어지러워지려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익을 생각한다.”

2. '三' 자로 나를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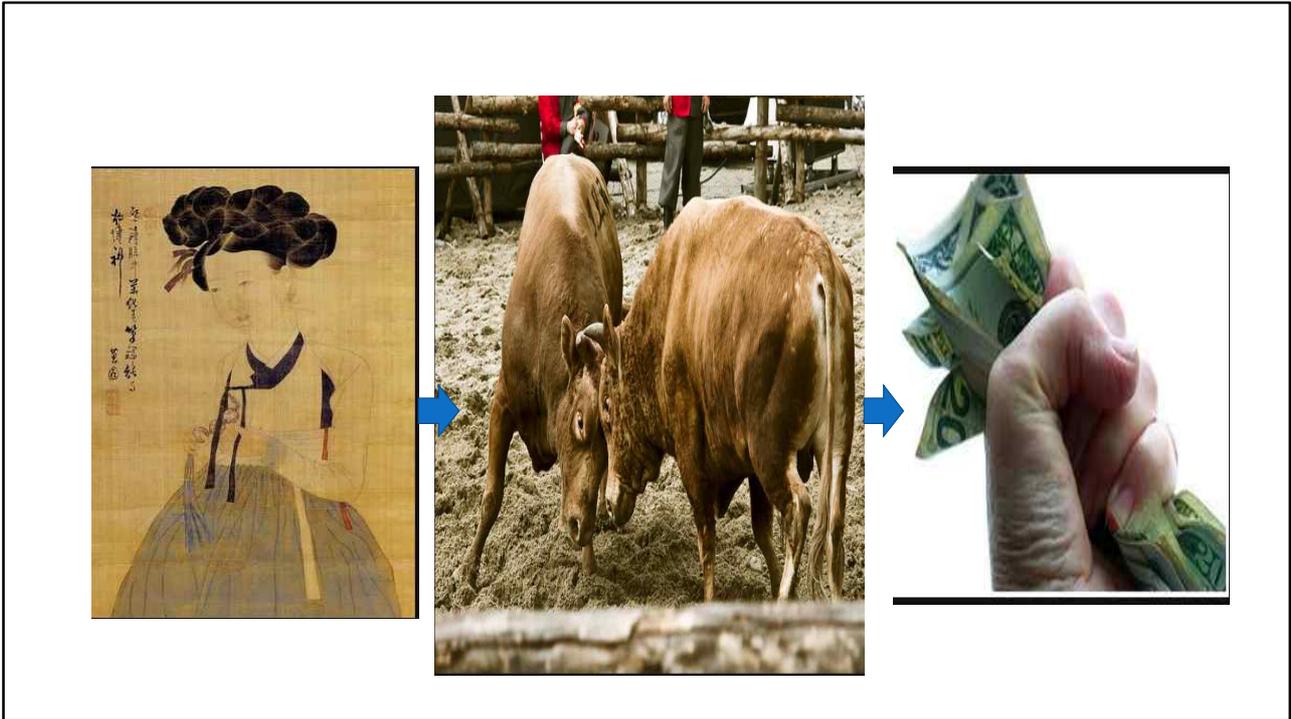
좋은 벗: 益者三友, 損者三友(익자삼우, 손자삼우) (21쪽)

“벗이 정직하고[직:直], 벗이 신실하고[량:諒], 벗이 견문이 넓으면[다문:多聞] 유익하고, 벗이 결치레만 잘하고[편벽:便僻], 벗이 아침을 잘하고[선유:善柔], 벗이 말만 잘하면[편녕:便佞] 해가 된다.”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잘못: “三愆(삼건)” (21-22쪽)

“아직 말할 때가 아닌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조:躁]하고, 말할 때가 되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은:隱]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장님[고:瞽]이라 한다.”



세가지 경계: “三戒(삼계)” (22쪽)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라 경계해야 할 것이
 여색[색:色]에 있고, 장성해서는 혈기가 한창 강한 때라 경계해야
 할 것이 싸움[투:鬪]에 있고,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한 때라 경
 계해야 할 것이 욕심[득:得]에 있다.”

3. 형제의 난: 일곱 걸음 안에 지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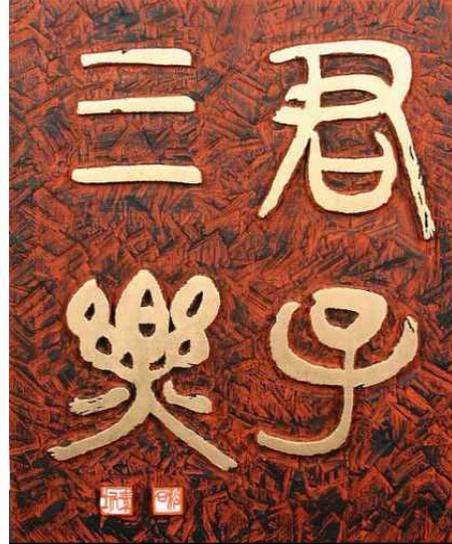


칠보시(七步詩) 조식 (22쪽)

煮豆持作羹(자두지작갱) 콩을 찌서 콩국을 만들고
 漉豉以爲汁(녹시이위즙) 콩자반을 걸러 즙으로 만들려는데
 萁在釜底然(기재부저연) 콩대는 솔 밑에서 타고
 豆在釜中泣(두재부중읍) 콩은 솔 안에서 울고 있네
 本是同根生(본시동근생) 본디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相煎何太急(상전하태급) 어찌 이리 심하게 볶아대는가

4. 무슨 낙으로 사는 가: “군자의 세 가지 낙(君子三樂)” (22쪽)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



5. 배우며 늙어가기: “촛불 같은 배움으로(七十欲學)” (22쪽)



“제가 들으니,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일출 때의 별과 같고, 장년에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중천에 뜬 해의 빛과 같으며, 늙어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촛불[炳燭]의 밝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촛불의 빛이라도 있는 것과 캄캄함 속을 헤매는 것,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입춘立春」

이상정(李象靖: 1711~1781)

눈바람으로 스산한 밤 무척 길기도 한데	(風雪蕭蕭夜苦長 풍설소소야고장)
잠 깨인 찬 창가에 새벽빛이 흔들린다	(寒窓睡罷動晨光 한창수과동신광)
매화향기 새어 들어 봄소식 전해오니	(梅香漏洩春消息 매향류설춘소식)
한기 가득한 대지위로 한줄기 따스한 빛이어라	(大地窮陰一線陽 대지궁음일선양)
누런 닭 울어 새 하늘을 알려오니	(黃雞喔喔報新天 황계악악보신천)
유수 같은 세월 속에 어언 칠십이라	(流水光陰七十年 유수광음칠십년)
세상만사 유유하게 모두 아랑곳 않고	(萬事悠悠渾不管 만사유유혼불관)
조심스러운 일념 속에 온전히 돌아가리라	(淵冰一念且歸全 연빙일념차귀전)

** 71세로 생을 마친 1781년 입춘을 맞이하며 지은 시.

입춘은
 겨울의 끝자락이자 봄의
 시작이다

새벽녘에 찾아 든 매화 향기와
 한줄기 별으로 새 봄을 느낀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또 다른
 생명의 봄날을 이어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출처: 네이버/바이두